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분위기 뒤숭숭

광주대광역고, 스쿨미투 무혐의 교사에 징계...학교 동문회 반발

검찰, 6개월 만에 시 고위 간부 구속영장 청구 수사 확대 여부·혐의 등 놓고 각종 추측 난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검찰은 지난 29일 고발장 접수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광주시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당시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평가표가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시 등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직권남용은 특정감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운영팀 감사위원장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국장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직권을 남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처럼 혐의가 추가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누가 재판을 받게될지 등을 놓고 다양한 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발언을 해 왔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운영팀 감사위원장도 재판에 넘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

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유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

의 이외에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이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지택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 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 보고 있다.



지진 대피 훈련 체험하는 시민들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롯데마트에서 고객들이 지진 상황을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오자 마트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장바구니를 머리에 쓰고 마트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행정선으로 신축 자재 나르고 직원에 찬조금 걷은 면장

진도 조도면장 황당감질...직원들, 노조에 공익신고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직원들은 2년여 전 A면장이 새로 부임하면 서부터 갖은 고초를 겪었다.

A면장은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행정선을 수시로 불렀고, 올해부터 조도면 부임지에 자신의 집을 새로 지으면서 행정선을 이용해 건설자재를 수차례 실어 나르도록 했다.

면민 체육대회 행사의 기념품을 사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5만원, 10만원씩 찬조금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정산도 하지 않고 경품으로 내놓은 냉장고는 본인 집으로 가져갔다. 자신의 선전 묘소를 정비하면서 면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급기야 이를 참지 못한 직원들

은 지난 9월 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에 비위사실을 공익신고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진도군 공무원노조는 면사무소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진술서를 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진도군 감사팀에 정식감사를 요청했다.

진도군은 감사를 진행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21일 A면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자 A면장은 직위해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과 정년을 1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A면장의 사직은 또 다른 비위사실이 불거졌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진도 경찰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가 판단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면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의회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진도군의회 한 의원은 “군청 감사팀에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사실확인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에 수차례 사실 관계를 문의했으나 감사팀은 답변을 피했으며, 홍보팀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 대광역고등학교가 지난해 발생한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도 징계를 내리면서 대광역고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광역고 총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이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대광역고에서 행한 부분별한 조사는 학생을 핑계로 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었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폭거였다”고 밝혔다.

대광역고에서는 스쿨미투로 19명의 교사가 기소되던 중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0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고, 5명은 벌금형, 2명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 10명에 대해

서 해임 5명, 징직 3개월 2명, 징직 2개월 1명, 징직 1개월 1명, 보류 1명 등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해임 3명, 징직 3개월 2명, 감봉 4명, 보류 1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역고 총동문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행해진 무혐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최대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실’을 하루 빨리 복원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지위 향상법에 제시된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은 다른 만큼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판결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차원 달리한 음란사이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며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쌍과 함께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으로 시작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2003년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으로 개편해 2016년 3월까지 운영하며 불법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 수

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재공조수사를 확대 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한 경찰은 이후 운영진 6명을 특정해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4명에 대해 미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뒤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해 6월 자진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가 발견, 자활치료 중인 민혜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임신기간이 혼란해오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